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정수정* · 최순종**

초 록

본 논문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 지원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의 틀로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분하고 사회통합의 일환인 독일 이주민 정책의 방향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정책의 지향점,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독일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책사례들이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지원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 사례분석의 주된 결과로는, 우선 정책의 보편적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로서 이주배경청소년을 그릴지 않은 청소년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성공적 사회 참여가 가능한 자립적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정책의 특수성 측면에서는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발동스케테 정책, 발동스케테 정책 하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를 지원하는 KAUSA사업, 그리고 이주배경이 있는 자를 교사로 양성하는 학생캠퍼스(Schülercampus)제도 등을 통해 이주배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독일 사례 분석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책이 이주배경청소년을 특정집단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전부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보편성과 이주배경청소년만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특수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교육정책, 다문화정책, 독일, 이주배경청소년

* 독일 기센대학교 연구원

**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교신저자, sjchoi@kyonggi.ac.kr

I. 서 론

이주배경청소년¹⁾이 성장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자아정체성 및 국가(민족)정체성의 혼란, 생활습관 및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경험,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학교- 또는 사회적응의 어려움, 부모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 지지기반의 미흡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열악하고 취약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 학교진학과 학업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의 미래 역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경숙 2014; 신현옥 2013; 오성배 2012; 전경숙, 이의정, 2012).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논문은 독일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기초와 연방차원의 정책 소개를 통해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지원정책수립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²⁾

독일은 전체 인구 80,716,000명 가운데 약 9%³⁾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20%가 이주배경이⁴⁾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4). 이주배경이 있는 인구 가운데 15~20세는 28%, 5~10세는 34%로 학령기 인구 가운데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높

1) '이주배경청소년'의 용어는 아마도 정부부처 또는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사용되며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일반화된 '통일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비교, 전경숙, 2014; 신현옥, 2012).

2) 본 논문은 한국과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보다는, 독일의 통합정책 기초와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지원정책의 토대가 되는 연방차원의 주요정책과 법적기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정책을 수립할 때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사점 도출을 논문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연방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외국인의 수는 6,927,716명이나 외국인 중앙등록부에 따르면 7,633,628명으로 차이가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4).

4) 이주배경이 있는 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스스로 이주경험이 있는 자, 이주의 경험이 없는 이주 2, 3세대이지만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소 부모 한편이 이주민이거나 독일 태생 외국인인 경우, 독일인이지만 산업혁명이나 강제징용으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다 돌아온 (후기)귀향민((Spät)aussiedler)를 뜻한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3).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4).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국제화로 인한 전문 인력 수요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독일은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직업진로교육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성공적인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지속적인 운영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 교육정책의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져 왔다.

한편 독일은 알려진 바와 같이 직업교육이 교육체계의 전통적 요소로 중등2단계 교육과정부터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가 있다. 실습위주의 직업교육은 비교적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동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체계의 유동성으로 중등 2단계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고등교육과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체계를 토대로 독일은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필요성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지속적 증가로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2014년 4월 현재)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0년 기준 31,788(전체 학생 수 대비 0.44%)에서 2014년 67,806명(전체 학생 수 대비 1.07%)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⁵⁾ 사회통합 측면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의식 증가, 글로벌화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잠재력 활용 등의 이유로 이주배경청소년이 교육 지원정책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자 수요자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을 자립적 사회구성원으로 양성시키기 위한 직업진로 정책의 적극적 모색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또는 정책적) 연구의 필요성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교육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주요 직업진로 지원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⁶⁾

5) 2014년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주)배경을 보면, 한국출생이 57,498명, 중도입국 학생 수는 5,602명 그리고 외국인 자녀 학생 수가 4,706명으로 집계되었다(자료: 교육부, 다문화 학생 통계 현황(2014년 4월))

우선 본 논문에서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별된다. 그 하나는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⁶⁾,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구체적인 직업진로 지원정책 사례에 대한 소개이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을 사회통합의 원칙하에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지닌 독일시민으로 보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의 실천으로서 이주민 통합정책’(정책의 보편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이 지닌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독일 연방차원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체계와 지원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설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핵심적인 두 축을 전제로, 본 논문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교육지원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독일 이주민 통합정책의 방향과 이주청소년의 규모 및 이들의 교육적 상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과 직업진로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교육과 지원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방차원의 진로교육체계와 지원시스템, 주요 지원프로그램의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독일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사례들이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지원정책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주청소년이 유입되는 사회적 배경,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맥락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정책의 직접적 비교나 성급한 모방은 경계해야만 될 것이다.
7) 여기서 소개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이념과 가치는 독일의 외국인 정책 일반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배경청소년

1. 이주민 정책

통독 이후 소홀했던 이주와 통합정책은 2000년대 즈음 이전에 비해 수용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고⁸⁾ 2005년 여러 차례의 논의와 수정 작업을 거쳐 이주법(Zuwanderungsgesetz)이 제정되었다.⁹⁾ 이 법에 따라 이주민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주자를 독일사회로 통합하는 것이 개별 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에서는 이주민의 통합을 위하여 이주 정책과 관련 있는 부처들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관청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이 법은 ‘지원과 요구(Förderns und Forderns)’의 원칙을 명시하였다(강휘원, 강성철, 2010). 즉, 정부는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통합코스 제공과 정착 지원 책무를 지니는 한편, 이주민들은 독일어 습득 등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08).

‘지원과 요구’의 원칙을 토대로 2006년 7월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수상은 장기적인 국가통합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상들을 소집하여 통합정상회담(Integrationsgipfel)을 개최하여 2007년 독일 국가통합계획(Nationalen Integrationsplan)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이주민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연방, 주, 지자체, 경제, 학문, 종교 분야 등 각계 협회와 재단, 시민단체, 이주민 조직 등 사회전반의 참여와 시민사회 역할이 필수적이라 보고 소통을 통한 통합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통합은 상부로부터 규정되어질 수 없다며 강조하고 “우리는 이주민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한다”라 하며 통합에 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였다(Die Bundesregierung, 2007).

8) 독일의 경제부흥을 이끈 이주노동자의 체류가 장기화되어 가족이 정착하고 전후 난민과 망명자, 통독과 냉전 종식 이후 돌아온 귀향 독일인으로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이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9)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Von “Gastarbeiter”-Anwerbung zum Zuwanderungsgesetz. <http://www.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56377/migrationspolitik-in-der-brd>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이주민 통합정책이 일시적 특별과제가 될 수 없다고 하며 지속적인 통합정상회담을 개최하여 2011년 12월 국가통합계획의 구체화와 지속적 개발을 위한 국가통합 실행계획(Nationalen Aktionsplan Integration)을 수립하였다. 통합정책을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지속적인 국가과제로 본 것이다. 국가통합 실행 계획은 국가통합계획을 위한 모든 방안을 점점 가능한 목표로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 구조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통합 실행계획은 국가통합계획 수립의 토대가 된 대화의 원칙(Dialogprinzip)을 더욱 확대하여 국가, 시민사회, 수많은 이주민 조직이 참여하여 수립하였다(Die Bundesregierung, 2011).

독일 정부의 국가적 통합정책의 목표는 이주배경을 가진 독일 주민들의 전반적 삶의 기회정의(Chancengerechtigkeit) 개선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출신배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주민이 가진 다양성을 가치 있는 자원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성공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사회통합은 연방정부의 중요 과제이자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져야 할 책임으로 간주하며, 정부는 이주민들의 통합을 지원하며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통합정책을 일시적 특별과제로 보지 않고 사회구조 변화가 요구되는 지속적 과제로 보고 있다.

독일의 이주민 정책의 지향점은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에 있으며 또한 이의 실천을 위해서 ‘지원과 요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독일 이주민 정책의 원칙으로서 ‘지원과 요구’의 의미는 이주민을 ‘이질적’ 사회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편견과 차별이 없는 ‘동일한’ 시민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전반에 참여, 기여하고 시민사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이주배경청소년과 교육적 상황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는 약 20%정도이나 아동, 청소년기 연령대의 이주배경 인구 비율은 훨씬 높아¹⁰⁾ 학령기 인구의 삼분의 일 가량이 이주로 인한

10) 5세 미만 36%, 5~10세 미만 34%, 10~15세 미만 30%, 15~20세 미만 28%임

문화의 이질성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4).

이주 배경을 지닌 가정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2014년 독일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29.1%가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업자부모,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 빈곤위험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위험요소에 처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주배경을 가진 경우는 이러한 비율이 47.2%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다.

독일사회에서 직업교육은 취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는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진로에 있어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보다 이원적 직업교육¹¹⁾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30~35세 주민 가운데 이주배경을 가진 경우 직업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35.4%로 이주배경이 없는 경우 10.8%보다 월등히 높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4). 직업교육 진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¹²⁾ 졸업 없이 학교의무가 종료되는 중도탈락자 비율도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독일인 학생의 두 배 이상이다. 독일에서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기능이 강한 김나지움(Gymnasium)으로의 진학이 독일인 학생에 비해 낮고 김나지움보다 낮은 수준의 중등학교로의 진학이 많다(Deutsch Türkische Nachrichten, 2012. 10. 14.). 2014년 독일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교육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51.7%가 이원적 직업교육을 받고 21.74%가 학교적 직업교육, 26.6%가 직업교육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과도기체계¹³⁾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경우 2.6%의 학생만이 과도기 체계의 지원을 받는데 반해 하우프트슐레 졸업자는 42.7%,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특별히 높은 의무교육이 종료되었으나 하우프트슐레 졸업장조차 없는 경우는 73.5%가 과도기 체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도 직업교육 진입부터 어

11) 이원적 직업교육(duale Ausbildung): 이원적 직업교육이란 기업체에서 현장교육을 받고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두 가지 형태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이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직업수행에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이론적 토대도 견고히 하는 것임.

12) 독일의 중등학교 가운데 가장 수준이 낮은 학교임.

13) 학교졸업 후 직업교육체제로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이다. 이원적 직업교육을 원하지만 직업교육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능력을 개선하여 더 나은 직업교육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이다.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우푸트슐레 졸업자격 획득 후 이주배경 유무에 따른 직업교육체계 진입 현황을 살펴보면, 이원적 직업교육에 진입하는 비율이 독일인은 43.7%인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29.4%로 매우 낮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2). 외국계 이름을 가진 경우 동료학생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직업교육자리 구직면담의 기회가 적고 이주배경이 있는 지원자의 경우 독일인 동료에 비해 기업의 부정적 선입관 등으로 다수의 불이익을 당하고 잠재력을 과소평가 받고 있다(SVR¹⁴, 2014). 또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직업교육 중도포기 비율도 독일인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4).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육성취도도 낮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이원적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학교교육 수준이 부족하고 여러 사회적 편견으로 이원적 직업교육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시사하는 바는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의 직업교육 기회개선을 위해 학교교육수준 향상과 과도기 과정 개선을 위한 동행적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질 것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사회인식과 구조변화를 가능하게 할 장기적인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III.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 정책

1.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교육의 방향

독일 국가통합계획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문화·경제적 통합을 위한 핵심 열쇠이다(Die Bundesregierung, 2007. S. 15).” 이주민 통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육이며, 교육을 통해 독일어 능력을 함양하는 것, 그리고 교육-노동시장으로의 연계를 강

14) Der Sachverständigenrat deutscher Stiftungen für Integration und Migration (SVR): 통합과 이주 독일재단의 전문가위원회.

화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독일은 연방주의에 따른 교육자치권의 원칙에 따라 주정부가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성인교육에 까지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은 사회 참여의 과정이며 잠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확실한 길이므로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은 연방정부-주정부-지역 모두의 공동 과제로 삼고 있다.

독일정부는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성공적 운영과 사회통합이 거주지 인근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자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경제, 노조, 종교단체, 재단, 협회 등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 부서, 주 교육부 장관회의, 이주민통합과 교육 관련 재단, 협회 등 유관기관이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기회와 교육 참여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합의한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관한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1, 2013). 첫째, 교육참여 기회 평등과 교육, 직업교육, 보편적 계속교육 진입을 위한 여건을 개선한다. 둘째, 교육, 직업교육, 보편적 계속교육의 과도기 과정을 개선하여 조성하고 연결(다음단계로의 진입)을 보장한다. 교육체계간의 유동성을 확대한다. 셋째, 개별지원을 강화한다.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청년의 잠재력을 인지하여 지원한다. 넷째, 교육의 질보장과 개발을 이어나가며 교육연구를 차별화한다. 독일의 교육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국가 통합정책 실행을 위한 교육, 직업교육, 계속교육 정책의 목표는 모든 독일 주민들이 출신배경과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는 것으로 이를 위해 최선의 개별지원을 하고 교육관련 구조를 개선하여 그들의 교육성공과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독일은 인구구조변화, 전문 인력 수요증가에 따라 모든 독일 거주민의 잠재력을 인지하여 이를 최대한 지원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전반의 성공적 운영을 독일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가통합 실행계획은 진행 중인 연방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연결되어 실행되고 있다.¹⁵⁾

15) 이주청소년들의 직업교육으로의 통합은 이주청소년들의 교육성취와 사회통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직업교육을 졸업하였을 경우 실업률이 2012년 5%에 지나지 않아 직업교육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19%에 비해 월등히 실업의 위험이 낮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4).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은 직업교육 및 진로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교육수준과 불리한 사회적 배경으로 학교-직업 간 과도기 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직업 간 성공적 이행을 위한 독일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전략은 1)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직업예비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적 진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2)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이 기반이 되는 학교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3)자신의 적성, 흥미, 수준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자리를 중재를 개선하고, 4)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졸업하도록 동행적 지원을 하고, 5)직업으로의 이행을 위한 전반적 과정에서 개별적 지원을 강화하고, 6)지역의 직업진로 지원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교육을 위한 독일의 지원정책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독일 정부는 이주민 통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육이라는 신념 하에, 독일어 능력 함양,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정책을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 지원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은 이들이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자립적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된다. 이런 정책은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관계기관의 노력이 함께 작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방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사례

독일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실질적 직업진로 지원을 위해 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교육 지원방안을 강화, 확대하고 있다. 연방의 각 부처에서도 부서의 성격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직업교육 개선 방안, 직업교육 자리 수요와 공급조정, 경제 분야와의 협력개선 방안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진로개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현재 이주배경이 있는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주 2, 3세대의 증가로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을 정확히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사회 통합측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만을 따로 분류

하여 특별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취약집단 청소년, 또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이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직업진로교육을 위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사회법 관련 정책과 연방의 빌둥스케테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사회법(Sozialgesetz)에 근거한 직업교육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사회법II, III에 따른) 의무적 근로 지원은 크게 직업상담, 직업예비교육, 직업교육 중재 등 세 가지이다. 첫째, 직업상담은 청소년, 청년,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직업과 해당직업에 필요한 자격, 직업교육 지원방안,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의 발달, 직업교육과 직업교육 자리 구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직업예비교육은 직업 선택과 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졸업학년이나 졸업 1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직업정보센터, 고용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셋째, 직업교육 중재는 연방 고용지원청과 잡센터가 이원적 체계하의 직업교육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나 구직중인 사람들을 위해 직업교육 중재 역할을 수행할 책무가 있어 이들이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구직 관련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1).

이상에서 언급한 3가지 의무적 근로지원은 늦어도 학교 졸업 1년 전부터 시작되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3가지 의무적 지원 외에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및 불리한 여건의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법 II, III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집단 청소년들을 위한 추가적 지원(사회법에 근거한 특별지원) 가운데 이주 배경 청소년 직업진로 지원과 관련된 몇 가지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16) Bundesagentur für Arbeit: <http://www.arbeitsagentur.de/web/content/DE/Unternehmen/Ausbildung/index.htm>

1) 사회법에 따른 특별지원 방안

(1) 직업준비 교육 방안(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¹⁷⁾)

BvB는 직업교육 진입 기회개선을 위한 직업교육 준비과정으로 직업교육 자리를 구직하지 못한 청소년, 학교졸업장이 없거나 이주배경, 또는 장애로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지원청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학생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방안을 지원한다. 다양한 직업분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성격의 교육운영자가 BvB를 운영한다. 이러한 기관은 민간기관이지만 고용지원청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위한 실질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습을 겸한 교육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력부족으로 직업교육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들은 BvB의 지원을 받아 하우프트슐레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직업을 위한 실질적 능력, 일반교육 외에도 참여 학생들은 인성교육 및 사회성 훈련도 함께 받으며 언어교육, 기본적인 IT-미디어 교육, 직업교육 자리 구직을 위한 지원훈련도 받게 된다. 교육기간은 10개월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매월 250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2)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질 향상 프로그램(Einstiegsqualifizierung, 이하 EQ)

EQ 프로그램은 전일제 학교의무 교육이 종료된 25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학습침해나 이주배경과 같은 사회적 불리함,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자격요건 부족 등으로 이원적 직업교육 자리를 구직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원적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기업에서 실시한다. EQ 프로그램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되며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직업교육에 필요한 실질적 능력을 교육 받는다. 장기 실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Q 프로그램 참여자는 실습기간동안 해당 기업에서 직업교육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분제 의무교육, 즉 직업학교 교육의 의무가 종료되지 않은 청소년은 EQ프로그램 참여기간동안 직업학교에 다녀야 한다. EQ 프로그램 참여 교육생은 이후 직업교육을 받을 때 상공회의소와의 합

17) 이하 BvB로 표기함.

의하에 직업교육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EQ 프로그램 교육생은 매월 소정의 임금과 사회보장보험의 혜택도 받는다. 고용지원청 또는 잡센터가 EQ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의 고용주에게 직업교육생의 임금을 위해 최대 월 216유로를 지원하고 직업교육생의 전체사회보장보험을 위한 평균 분담금을 지급한다.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인력을 위한 국가협정 2010-2014(Nationale Pakt für Ausbildung und Fachkräftenachwuchs in Deutschland 2010-2014)’하 경제 분야가 매년 40,000여개의 EQ 교육자리를 제공하였다.

(3) 직업교육을 위한 추가수업 지원(동행서비스)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거나 학습 부진으로 직업교육 진입에 어려움이 청소년, 학습능력 부족으로 직업교육 졸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교육생, 직업교육을 중도포기하여 새로운 직업교육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운 경우 성공적인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언어교육과 부족한 학습만회를 위한 과외수업(추가 지원수업)과 사회교육학적 동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직업교육지원금

국가가 인정한 직업교육 또는 이를 위한 직업준비 교육방안 참여자 가운데 직업교육기관이 거주지와 멀어 직업교육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거나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18세 이상 직업교육생이 직업교육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살수 없는 경우 직업교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비, 교통비, 자녀 양육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빌둥스케테(Bildungskette: 교육체인) 이니시어티브¹⁸⁾

“졸업과 연결 - 직업교육 졸업까지 빌둥스케테(Abschluss und Anschluss - Bildungsketten bis zum Ausbildungsabschluss)”는 연방 교육과 연구부가 지난 2010년 학교-직업교육

18) 출처: initiative Bildungsketten, <http://www.bildungsketten.de/de/235.php> 와 Servicestelle Bildungsketten bei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BIBB) für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2013). Bildungsketten, Bonn.

간 과도기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집단 학생들이 과도기 과정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발의한 이니셔티브이다. 독일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협정’ 가운데 한 부분이자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교육 개선을 위한 국가통합 실행계획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¹⁹⁾

연방 교육과 연구부는 연방 노동사회부, 연방고용지원청, 연방직업교육연구소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선행 방안들을 연결하여 빌둥스케테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전체 3억 6천 만유로의 예산을 지원한다.

빌둥스케테는 주로 중등학교 가운데 수준이 가장 낮은 하우푸트슐레와 퍼르더슐레(Förderschule, 지원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빌둥스케테 프로그램은 학교 졸업 전부터 취약집단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졸업 후 과도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업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 지자체, 주, 연방, 고용지원청이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불리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인 빌둥스케테는 이를 통해 전반적인 직업교육체계 개선에도 일조하고 있다.

빌둥스케테의 중점은 예방적 지원, 직업예비교육과 동행적 지원에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졸업 전부터 시작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특별 프로그램인 직업진입동행과 연방 교육연구부의 직업예비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직업진입동행자, 직업상담사, 교사, 직업교육 훈련교사, 학부모 외 여러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청소년이 직업 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빌둥스케테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잠재력분석, 직업진입 동행, 직업예비교육 등

19) 2008년 독일에는 의무교육이 종료되었으나 최소한의 중등학교 졸업인 하우푸트 슐레 졸업자격도 획득하지 못한 학생이 70,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가 높았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교육 부족으로 직업교육 진입이 어렵고 직업교육 중도포기비율도 높다. 독일 사회에서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구성원은 성공적 사회통합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위험이 높고 현재 독일 인구의 감소로 전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기업체는 전문인력 부족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독일 연방과 주의 교육 정상들은 2008년 10월 학교교육이 종료되었으나 최소한 학교 졸업자격이 없는 청소년 비율 감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빌둥스케테 이니셔티브가 발의되어 2010년 내각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3단계(능력구축-확실한 목표설정-미래를 위한설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의 프로그램은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7학년 또는 8학년부터 시작된다. 잠재력분석을 시작으로 현장 경험을 통한 직업예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 학교졸업 후 적합한 직업교육 자리를 찾거나 과도기적 프로그램 또는 실습을 통해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은 모두 진로 포트폴리오인 직업선택패스(Berufswahlpass)에 기록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진로교육과 직업선택에 활용하도록 한다.

빌둥스케테 정책에는 이주배경으로 인해 불리한 여건에 놓인 청소년을 비롯하여 취약 계층의 진로 지원을 위해 독일 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주요 관련 프로그램이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주요 연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직업예비교육 프로그램 - 초기업적과 이에 상응하는 직업교육장에서의 직업예비교육 지원 프로그램(BOP)²⁰⁾

BOP는 잠재력 분석과 작업장에서의 실습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잠재력 분석은 7학년 2학기에, 작업장에서의 실습은 8학년에 실시된다. 학생들은 조기에 잠재력 분석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알아보고 작업장에서의 2주간 실습을 통해 최소 3가지 직업분야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진다. 프로그램 대상 학생들은 중등 1단계 학교졸업(하우푸트슐레)을 학교교육의 최대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9학년 후 학교를 졸업하면 직업교육체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에 BOP는 학생들이 졸업 후 과도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업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2) “잡스타터(JOBSTARTER)”

“JOBSTARTER”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을 확보하고 지역 직업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이원적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특정분야의 직업교육 이니셔티브 지원, 특정 집단을 위한 기

20) Berufsorientierungsprogramm - Programm zur “Förderung der Berufsorientierung in überbetrieblichen und vergleichbaren Berufsbildungsstätten”

업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각 지역의 직업교육 구조 개발과 유럽 국가들과의 직업교육 협력이 “JOBSTARTER”의 중요과제이다.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학급의 기업견학을 조직하는 것도 “JOBSTARTER”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JOBSTARTER” 하 정책실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종 상공회의소와 직업학교가 협력하고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진입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들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퇴직 전문가 서비스(Der Senior Experten Service (SES))”

퇴직 전문가 서비스는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중도포기(Verhinderung von Ausbildungsabbrüchen: 졸업말 VerA(베라))를 방지하기 위해 “JOBSTARTER”정책 하 운영되는 세부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직업교육 중도포기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퇴직 전문가들은 베라(VerA) 코치라 불리며 1,000여명의 베라 코치들이 자신의 직업적 경험과 삶의 경험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개별 지원하고 있다. 베라 코치들은 각 1명의 청소년만을 담당하여 담당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돕는다. 베라 코치는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청소년들이 직업교육동안 전문지식에 관한 문제나 직업교육을 받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이들이 사회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시험기간 동안 동기를 부여한다.

(4) 카우자 프로젝트(KAUSA: 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²¹⁾

카우자 프로젝트는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직업교육 자리를 조정하여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의 직업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²²⁾ 2013년 3월까지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로부터 9,000여개의 직업교육

21) 출처: KAUSA, <http://www.jobstarter.de/de/kausa-21.php> 카우자는 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이주민과 직업교육 조정기관)의 졸업말로 연방, 주정부 및 경제, 교육 분야가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합의한 “직업교육과 차세대 전문인력을 위한 국가적 협정(Nationalen pakt für Ausbildung und Fachkräftenachwuchs 2010-2014)”의 한부분이기도 하다. 1999년에 설립되어 2006년부터 “JOBSTARTER”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연방교육·연구부, 유럽사회기금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22) 독일에는 2012년 기준 760,000여명의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고 2백만 명의 독일 주민이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들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

자리를 창출하였다. 이주민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에 대한 직접적이고 영향력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이주배경이 있는 성공한 사업가들은 독일에 있는 이주 청소년들에게 사회통합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일종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본다.

카우자 프로젝트는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업교육생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시작과 과정의 모든 단계를 돌보고 상담을 한다.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기업주)에게 사업장에서 직업교육생을 양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점과 기회, 고용청, 직업학교, 상공회의소의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관계를 설명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 카우자는 이주배경이 있는 훈련교사 양성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연방교육과 연구부가 지원하고 상공회의소와 민간 교육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카우자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3만 유로를 지원하여 미디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교, 대학, 직업교육과 관련 독일 이주민의 이야기를 공모하고 있는데 35세 미만의 저널리스트들이 응모할 수 있다. 이주민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독일사회에 통합된 이주민을 알림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3)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의 교직 입문을 돕는 학생캠퍼스(Schülercampus)²³⁾

학생캠퍼스는 이주배경이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이다.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들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교육 개선의 필요로 이주배경이 있는 교사를 확보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교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교직으로의 입문을 돕는다. 이주배경이 있는 교사는 성공적 사회통합과 교육의 모범상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고 학교의 제문화적 개방 및 사회, 문화, 언어적 배경과 개인의 교육성공 간의 상관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학생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교육 성공을 이루기 위한 용기와 신뢰를 주는 데는 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주

14%만이 직업교육생을 교육하고 있을 뿐이다.

23) 출처: Schülercampus - Mehr Migranten werden Lehrer, <http://www.mehr-migranten-werden-lehrer.de/h/>

배경이 있는 교사의 경우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들의 모범상의 역할을 하며 동질감을 통한 신뢰확보가 가능하여 이들의 교육성공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학생캠퍼스는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 가운데 대학진학을 목표로 아비투어를 준비 중인 오버슈투페 학생이 지원 동기서와 학교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는 심사위원의 선발에 의해 결정되며 연 1회 4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사범대학 교육과정과 교직에 요구되는 능력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우수교사들과 작업을 함께 하기도 하고 면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고 학교 견학을 통해 학생이 아닌 교사의 관점으로 학교를 경험할 기회를 가진다. 이주배경이 있는 사범대학생, 교사예비근무자, 교사와 교수들의 경험을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범대학 교육 과정에 대한 개별상담도 받는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교직을 위한 자신의 전공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특별히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재단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IV. 결 론: 독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을 사회통합의 실천으로서 이주민 통합정책이라는 ‘정책의 보편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정책의 특수성’ 측면에서 고찰했다. 또한 이런 두 가지 논의의 축을 따라 독일 이주민 통합정책의 방향과 이주청소년의 규모 및 이들의 교육적 상황,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과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방향,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독일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방향은 물론 앞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사례들이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지원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과 독일간의 교육제도 또는 직업진로제도의 차이와 더불어 실천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상이성 때문에 두 국가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물론 시사점 도출 역시 어

려움이 있다. 이와 동시에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사회사업)의 전달체계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도 긴밀한 연계 속에서 추진된다. 또한 대부분의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운영은 관주도가 아닌 공적인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독일의 직업진로를 위한 교육제도의 우수성은 주지하는 바이고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독일의 직업진로 지원정책 역시 주어진 교육제도 여건을 적절하게 활용만 해도 실현가능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직업교육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독일 교육제도와 사회복지 추진체계의 한국과 독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고찰한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이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을 위한 논의와 정책의 보편적 방향설정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즉 독일의 사회구조와 교육제도가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정책 수립에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서두에 제시한 논문의 두 가지 축을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라는 ‘정책의 보편성’측면에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독일은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을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와 책임이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지원을 위해 독일은 연방주의적 횡적 연대구조를 기반으로 연방 수준에서 그리고 주에서도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성공적 운영과 사회통합이 거주지 인근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경제, 노조, 종교단체, 재단, 협회 등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독일의 교육과 통합정책은 성공적 사회 참여가 가능한 자립적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뿐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해당된다. 교육목표에서 주체적 삶을 위한 자기책임의 원칙이 견지되도록 ‘자립’을 핵심어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역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 이주민 통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육이라는 신념하에, 이주

민들의 사회 통합에 독일어 능력 함양과 교육-노동시장으로의 연계 강화정책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자립적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을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독일의 경우 직업진로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고 직업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용지원청이 학교의 진로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현실에 적합한 진로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강점과 더불어 이주배경청소년과 같이 취약집단 직업진로 지원을 위한 사회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주배경청소년 및 취약집단 청소년들의 진로지원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성격의 학교 외부 민간 교육기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이주배경청소년을 특정집단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전부를 포괄하여 문제 중심으로 통합적 직업진로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그 안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 가진 취약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이 안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으나, 모두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이 고유의 특성은 다른 문제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교육복지 체제 내에 관련 사업을 포괄하여 활용하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빌둥스케테 프로그램은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을 위한 연방차원의 중점 프로그램이지만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포괄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지원하기보다 처한 여건과 상황, 그리고 충족되어야 하는 교육적 요구 때문에 지원한다면 이미 구축된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을 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교육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체제를 확대하고 이 가운데 지원해야 할 대상별 특수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의 측면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동료들과 구분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고려에서 도출되는 ‘정책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건과 환경의 불리함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가 적고 교육환경적인 측면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정보에 어둡고 동기가 낮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진로교육체계나 사회법, 빌둥스케테 등의 제도와 법 그리고 정책실행에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조력자와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개인의 특성과 이력을 고려한 잠재력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이런 결과들을 개별적 지원의 토대로 삼고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 특성, 적성에 적합한 진로설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개별상담, 프로그램, 재정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직업진입 동행자에 의한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토대로 한 개별적 지원은 부모와 가정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할 수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동기를 찾고 노력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구체적 지원정책으로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특수성(상이성)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들의 사회적응, 문화적응, 학교적응 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자영업자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를 지원하는 KAUSA사업은 고려해 볼만하다. 이주민의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주배경이라는 유사한 상황과 여건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사례들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모범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KAUSA와 더불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서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을 교사로 양성하는 학생캠퍼스(Schülercampus)제도를 들 수 있다. 이주배경이 있는 교사의 경우 동일한 처지의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표상이 될 뿐 아니라 동질감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교육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학생캠퍼스 제도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한국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책사례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지향점을 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에서 우리가 상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주배경청소년을 특정집단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년 전부를 포괄하여 지원 한다”는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이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 탈북청소년, 또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모두 개별적인 집단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있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이다. 즉 이주배경 청소년과 취약계층의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며 주배경 청소년만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휘원, 강성철 (2010).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회보** 14(4), 291-316.
- 신현옥, 양계민, 서윤정, 김미라 (2013).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신현옥, 윤상석, 이슬기, 김도혜, 이향규, 오수연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62.
- 전경숙 (2014).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수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전경숙, 이의정 (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2). *Bildung in Deutschland 2012*. Bielefeld.
-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4). *Bildung in Deutschland 2014*. Bielefeld.
- Bundesagentur für Arbeit-Agentur für Arbeit in Bielefeld (2013) *Ausbildung und Schue Beruf regional*. Bielefeld.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08). *Migration und Integration*. Berlin.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3). *Migrationsbericht*. Berlin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1). Bericht der ressortübergreifenden Arbeitsgruppe zur besseren Abstimmung der verschiedenen Programme und Förderinstrumente für junge Menschen.
- Bu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1). Aktionsplan zur umsetzung des Nationalen Integrationsplan-Dialogform “Bildung, Ausbildung, Weiterbildung”, Begründung der strategischen und operativen Ziele. Stand 2011. 6. 30.
- Bu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3). Nationaler Aktionsplan Integration, Bilanz der Bundesmaβmen zum Dialogforum “Bildung, Ausbildung, Weiterbildung”
- Die Bundesregierung (2007). *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 Berlin.

- Die Bundesregierung (2011). Nationaler Aktionsplan Integration - Zusammenhalt stärken - Teilhabe verwirklichen. Berlin.
- Forschungsbereich beim Sachverständigenrat deutscher Stiftungen für Integration und Migration (SVR) (2014). Diskriminierung am Ausbildungsmarkt - Ausmaß, Ursachen und Handlungsperspektiven. Berlin.
- Servicestelle Bildungsketten bei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BIBB) für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3). *Bildungsketten*. Bonn.
- Statistisches Bundesamt (2014).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Wiesbaden
- 교육부 (2014). 다문화 학생 통계 현황. <http://www.moe.go.kr/web/100068/ko/board/view.do?bbsId=343&boardSeq=57128&mode=view>
- Bundesagentur für Arbeit. <http://www.arbeitsagentur.de/web/content/DE/BuergerinnenUndBuerger/Ausbildung/Berufsausbildung/index.htm>
-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http://www.bibb.de/de/wlk26560.htm>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Von “Gastarbeiter”-Anwerbung zum Zuwanderungsgesetz. <http://www.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56377/migrationspolitik-in-der-brd>
- Deutsch Türkische Nachrichten. Retrieved October 14, 2012, from <http://www.deutsch-tuerkische-nachrichten.de/2012/10/461578/das-teuflische-dreieck-fuer-migranten-bildungsferne-armut-arbeitslosigkeit/>
- Initiative Bildungsketten. <http://www.bildungsketten.de/de/235.php>
- Initiative Bildungsketten: Partner Kooperation für einen besseren Übergang. <http://www.bildungsketten.de/de/238.php>
- KAUSA. <http://www.jobstarter.de/de/kausa-21.php>
- Schülercampus-Mehr Migranten werden Lehrer. <http://www.mehr-migranten-werden-lehrer.de/h/>

ABSTRACTS

Studies on education policy for adolescent immigrants in Germany: Between generality and specifics in policy

Jung, Sujung* · Choi, Sunjong**

The article at hand analyses Germany's exemplary approach to provide adolescent immigrants in Germany with educational support. The research approach refers to the distinction between generality and specifics in policy for adolescent immigrants in Germany. In this regard, generality is a matter of immigration policy as social integration and particularity contains concrete political measures. From both cases, it is possible to derive lessons and good practice models from Germany's approach and apply some of these to Korean policy. The promotion of occupational skills a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social integration, the consideration of the immigrant's special conditions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KAUSA-program", "student-campuses", etc. were seen as being the most essential conclusions derived from these studies. In summary, the key lesson for Korean policy is not to regard adolescent immigrants as a special social group but as an equivalent part of the society. Therefore the consideration of both generality and specifics is necessary.

Key Words: education policy, immigrant policy, Germany, adolescent immigrants

투고일: 2015. 3. 16, 심사일: 2015. 6. 18, 심사완료일: 2015. 6. 25

* Researcher, Justus-Liebig-University Gießen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